

제14호 태풍 「매미」
被害 및 復舊狀況 報告

2003. 10.

부산광역시 사하구

報告順序

I . 防災關聯 現況

II . 颱風被害 및 復舊狀況

III . 向後 發展課題

I. 防災關聯 現況

1. 防災體系

□ 방재 조직

- 부산광역시 사하구재해대책본부 (본부장 : 구청장)

《주요기능》

- 재해예방, 재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
-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및 집행

□ 근무 체제

- 준비체제(주의보 발령시, 방재담당부서 상황 근무) ⇨ 경계체제 (경보발령시, 전직원1/3 근무) ⇨ 비상체제(대규모 재해 발생시, 1/2 근무)

2. 脆弱施設 管理現況 ▶ 총 3개분야 11개소 관리중

구 분	현 황	관 리 상 황
방 재 시설물	· 하천, 제방, 배수펌프장 등 5개소	· 수시 점검 및 정비, 가동상태 확인
대규모공사장	· 택지 조성, 도로 건설 등 5개소	· 재해대비 점검 및 확인
재해 우려지	· 재해 우려지 6개소	“ ”

※ 재해 위험지구, 경계구역 해당사항 없음

Ⅱ. 颱風被害 및 復舊狀況

1. 颱風 概況

- 제14호 태풍 「매미」는 9.12(금) 21:00경 부산지역을 통과하면서 부산은 태풍 진행방향 오른쪽인 위험지역에 위치(중심반경 330km)
- 1959년의 태풍 「사라」(최대풍속 34.7m/s)를 능가하는 史上 최대의 강풍 내습
 - ※ 부산지방기상청 발표 12일의 최대풍속 42.7m/s(21:01)
- 특히 강한 바람과 만조(21:34)시간이 겹쳐 최악의 해일이 발생
- 강수량(9.11~9.13) ⇨ 103.5mm

2. 主要 措置事項

- 태풍 내습 2일전(9.10) 부터 공무원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지휘관의 24시간 정위치 및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조치
- 태풍 내습 2일전(9.10) 1단계 비상근무 돌입
 - 총 14명(건설과 1/3 근무)
- 태풍 내습 1일전(9.11, 19:00) 부산시 비상간부회의 개최, 2단계 비상근무 및 직원 비상연락 완료(20:00)
 - ※ 우리구와 단가계약된 장비업체(경성종합중기)
⇒필요시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대기조치
- 태풍 내습 당일(9.12) 3단계 비상근무(06:00 전직원 1/2), 재해 위험지역 안전점검 실시(공사장 46개소), 취약지 순찰 강화 및 해일 우려지역 주민대피를 유도(사하경찰서 합동)

- 태풍 내습이후, 조속한 조치 및 총력적 행정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처
 - 태풍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구청장 특별지시 (9.13)
 - 민·관·군 협력체계 강화, 피해상황 신속·정확 신고, 응급복구 적극 동참 및 이재민에 대한 관심과 온정 당부 등
 - 全 공무원 비상소집, 구전역 대대적인 응급복구 착수(9.13)
 - 市 및 구 관계관 대책회의(3회, 9.13~ 9.15)를 통한 모든 행정력과 가능한 수단 총동원체제 구축, 응급복구 실시
 - 사하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피해복구 지원안내 홍보(9.15)
 - 「태풍 ‘매미’ 피해복구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」 알림판 공지
 - 「태풍피해 범구민 복구의 날」을 지정, 마무리 복구(9.20)
 - 민·관·군 1.7천명 참여, 피해 잔재물 제거(455톤)
 - 부산지역 등 피해지역이 「특별재해지역」으로 선포(9.22)

3. 被害 現況

- 태풍 強度에 비해 그동안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관리로 도로·제방 등 SOC 피해와 산사태와 같은 피해는 적었음
- 만조시간에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겹쳐 다대수협 인근, 다대포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택과 상가, 공장 등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음

인명피해(관외자) : 9 (5)명 ⇨ 사망 1 (2)명, 부상8 (3)명

※ 1959년 태풍 「사라」 시 사망·실종 : 237명

이 재 민 : 28세대 81명(다대초등학교 수용)

재산피해 : 11개분야 654억원(공공시설 131 , 사유시설523)

- 최악의 해일로 횃집과 상가, 주택 침수 및 영업시설의 파손·등으로 864개소 31억원의 피해 발생
- 신평·장림산단 등 공장피해가 346개업체에 425억원 발생
- 어선파손 78척, 등 어업피해가 67억원
- 강변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 131억원

《세부 피해내역》

공공시설 피해 131억원			사유시설 피해 523억원		
· 도로·교량 및 교통시설	9건	53억	· 해일피해(횃집, 상가 등)	442건	9억
· 항만	8건	41억	· 공장 및 기계	346업체	425억
· 학교시설	11개교	4억	· 건물	31동	14억
· 가로 등	284본	3억	· 수산·양식시설 등	210건	63억
· 가로수 등 기타	14건	30억	· 선박 및 어선	78척	4억
			· 축대담장등 기타	391건	8억

4. 罹災民 救護

- 사망·실종·부상자, 주택파손 및 침수에 대한 법정구호비 및 위로금을 市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후 정산 조치
- 양곡, 의류와 침구류, 생필품 등 구호물품은 우리구 비축분을 우선 지급하고, 재해구호협회·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適期 지원

구호대상 - 인명피해·이재민·주택침수 피해자

구호상황

- 이재민 구호비는 총 지원계획 16억 73백만원중 10.10일현재 8억 77백만원 지원

- 사망자 위로금 - 3명 41백만원 (1인당 1,500~2,000만원)
- 생계 구호비 - 272명 65 " (1인당 1일 4,000원)
- 침수주택 수리비 - 247세대 493 " (세대당 200만원)

- 주택 파손 - 22세대 13백만원 (전파 500만원, 반파 290만원)
- 소상공인 등 - 189세대 265 " (세대당 200만원)

- 구호물품은 10.10일 현재 생필품 등 3천 3백만원 상당 지원
 - 양곡 8,350kg, 의류 480점, 모포 218매, 생수 등 510박스

※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분

▷접 수 : 16건 33백만원(타 시·도 3건▷화순군 2건, 광주북구1건, 재해구호협회 1건, 적십자부산지사 2건)

▷배 분 : 33백만원

5. 被害復舊 狀況

- 구민생활 조기 정상화를 위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고 건물피해 잔재물과 수해 쓰레기 처리에 인력·장비 집중 투입
- 해일 피해주민과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치 및 해일피해·침수지역 등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

1 應急 被害復舊

- 응급복구대상 43건 중 43건 복구(99.9%)
 - 군인·경찰·공무원 등 11천명 참여, 장비 287대 투입

생활기반시설

- 도로 등 공공시설은 응급복구후 개통 조치
- 파손된 가로등(198본) 철거 및 도로표지판(2건) 철거 등 응급복구 완료

□ 해일 피해지역 복구 지원

- 공무원, 군인력, 자원봉사자 등 집중 배치하여 조기 복구 지원
 - 대부분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영업재개를 위해 활발한 자력 복구중
- 해일피해를 입은 생선횃집 등 해안지역 자영업자 영업시설 복구 비용 융자지원(식품진흥기금 및 부산은행 특별융자 등)
 - 업소당 5,000만원 이내, 연리 3% (3% 초과분은 시에서 이차보전)
- 건물·기업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, 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등 조치
- 피해주택, 상가, 공장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치(98건)

□ 어업 피해 복구

- 침수·침몰어선 78척 중 22척(28%)은 육지로 인양 복구중이나 침몰어선의 완전 제거에 장기간 소요예상
- 수산 증양식, 어망·어구 등 피해는 복구중에 있으나, 복구 기자재의 품귀로 適期에 양식 및 조업재개 애로

□ 쓰레기 처리 및 방역

- 태풍 쓰레기 발생량 6,900톤(도심지1,900, 연안해안5,000)
 - ※ 해일로 인한 해안가 건물파손·가옥침수 등 재해쓰레기 집중 발생
 - 9.13(토) 05:00부터 해안가·가로변의 잔재물을 대대적으로 수거, 매립장에 무상반입 처리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
 - 쓰레기 처리비용(해양: 7억6백만원, 육상: 1억9천만원)
 - 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집적지 방역활동 강화 등
- ⇒ 도심지의 재해 쓰레기(1,900톤)는 9.20일 1차 처리 완료,

해양 쓰레기·하천유입 부유물 등 연안해안 쓰레기(5,000톤)는
유관기관합동 처리대책 추진 ▷현재 500톤(10%) 처리, 11월말 완료 예정

- 16개 기동방역반 편성·운영(사하구보건소, 자율방역단 160명)
- 총 88개지역 895회 실시

2 恒久 被害復舊

- 항구 복구대상 48건, 258억9천만원
 - 공공시설 43건 258억원, 사유시설 5건 9천만원
 - (區 관리시설 19건 181억원)

□ 복구계획 수립 추진

- 중앙합동조사반과 합동으로 被害實査(9.18~23) 완료하고 실사
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 수립(10.2)
- ⇒복구계획 중앙심의·확정(10월중) ⇒ 부처별 예산확보·배정(10월중)

□ 피해시설물 복구

- 공공시설물 복구 : 조속한 복구 위해 행·재정절차 최대한 간소화
 - 설계지원반 운영 및 복구비 先집행 後정산제 시행
 - 교부된 복구비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예산성립전 집행
- 긴급배정 재해복구 지원금 사용 공공시설물 복구
(재해복구비 12건 1,400백만원 ▷국고)
 - 감천항 중앙부두 앞 재해복구공사 등 주요 공공시설(도로8,7
로등1,다대해수욕장등 공용시설3) 12건에 대하여 긴급 복구추진
 - ※ 도로 등 공공시설은 10월부터 공사 발주, 조기 복구
- 사유시설물 복구
 - 복구비 신속한 지급으로 건물, 선박, 수산피해 조기 복구
 - 특히 피해주택에 대한 무료설계 및 건축신고 대행으로 동절기
이전 복구완료 지원(건축사회 주관)

Ⅲ . 向後 發展 課題

1. 强風 · 海溢에 대한 被害豫防 對策 강구

- 해변의 산업단지과 아파트 조성지역에 완충지대 확보 또는 차수벽 설치 및 방파제 보강
 - 해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水防門 설치, 창틀구조 · 유리창 강도 등 耐風性 시설을 위한 건축허가 기준 강화 추진
 - 해변 고층아파트 등 잦은 강풍 피해지역에 대한 태풍전 창문닫기 및 유리창틀 방풍테입 붙이기 홍보활동(구인터넷홈페이지, 관내유선사)
- ▣ 조례 개정 등 제도화 검토

2. 自營業者 및 中小企業 被害復舊 支援制度 보강

- 해일로 횃집 · 상가, 중소기업 등 민간시설 피해가 극심하나 현행 법령상 구호 및 복구비 지원제도가 빈약하여 복구 애로
- ▣ 영세자영업자의 영업시설 및 기업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또는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필요
- ※ 「재해구호및복구부담기준에관한규정」(대통령령) 제2조 제1항 적용 또는 법령 개정

3. 災害關聯 基金 運用 改善

- 재해대책기금은 기금 조성액의 50% 이상을 적립하고, 잔여액을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기금운용 효율성 저하
- ▣ 재해관련 기금을 재해예방 및 복구 · 구호에 폭넓게 사용가능토록 하고, 적립의무비율 하향조정 필요